

3/24/19

설교 제목: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 장 14-45

(막 1: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르시다(마 4:18-22; 눅 5:1-11)

(막 1: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막 1: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막 1: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막 1: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막 1: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절관주** 마 10:37, 눅 14:26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눅 4:31-37)

(막 1: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막 1:22)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막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막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절관주** 요 6:69

(막 1: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막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막 1: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막 1: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마 8:14-17; 눅 4:38-41)

- (막 1: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절관주** 마 8:14, 눅 4:38
- (막 1: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 (막 1: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 (막 1: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 (막 1: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 (막 1: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눅 4:42-44)

- (막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막 1:36)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 (막 1: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 (막 1: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 (막 1: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마 8:1-4; 눅 5:12-16)

- (막 1: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 (막 1: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 (막 1: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 (막 1: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 (막 1: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절관주** 레 14:3

(막 1: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절관주** 눅 5:15

헤롯 왕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갔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진 분봉 왕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아간 이유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헤롯 왕은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동생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대 법은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대를 이어 주기 위한 계대 결혼 이외에는 일절 형제의 아내와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레 18: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레 20:21)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헤롯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투옥시켰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막 1: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AD 65-70 년 쯤으로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극심히 핍박하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로마 성도들은 누구 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로마의 통치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세지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언급합니다.

마가는 왜 예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였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동시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그 자리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제자를 택하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막 1: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막 1: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막 1: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막 1: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막 1: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던 형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낚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4 명의 제자를 모두 어부 중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당시는 헬라 철학이 최고로 꽃 피우던 전성기였습니다.

따라서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학식이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범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돈 좀 모아 놓고 주님 따라갈게요. 은퇴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낸 후에 할게요"라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가진 것이 없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순히 고기 몇 마리 잡아다가 파는 어부들이 아니라 제법 규모있게 어업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몇 척의 고깃배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제사장들과 거래를 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이라고 왜 이해타산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을 믿고 결단하고 따른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로 혜택을 입은 자, 사도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막 1: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막 1: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음에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막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멀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1: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막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막 1: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한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 (막 1: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 (막 1: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 (막 1: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 (막 1: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 (막 1: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 (막 1: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택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하자 그들은 생업을 버려 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권세있게 가르치셨고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것을 보고 쫓아 온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천형으로 여겼던 나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고전 4: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경험하며 아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사탄 마귀들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우리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공의와 평강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되어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미래에 완성될 것임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